

13억 시장 수출 관세장벽 낮췄지만 농축수산업 치명타

국내경제 파급 효과와 업종별 명암

세계 3위 경제영토 확보...의료·화학품 등 中투자 기대 중국산 섬유·의류·생활용품 국내 시장 급속 잠식 우려

우리나라가 10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이다. 주요2개국(G2)으로 불리는 이유다.

세계 최대인 13억5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국가로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출액(5596억 달러)의 26%(1458억 달러), 수입액(5156억 달러)의 16%(830억 달러)가 중국을 상대로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한국의 수출액의 11%(620억 달러), 수입액의 8%(462억 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의 교역 규모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입을 합쳐 2005년 당시 1000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8년 뒤인 지난해에는 2288억 달러에 달했다.

제1의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 경제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여겨진다.

무엇보다 주력 수출품인 공산품의 관세 장벽을 낮췄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국은 수입 관세율이 평균 9.7%로 미국(3.5%)이나 유럽연합(5.6%)보다 높다. 이번 한중 FTA는 이런 수입 관세를 품목별로 철폐하거나 단계별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반면 이번 한중 FTA는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 FTA에서 양국이 20년 내에 관세철폐를 하기로 한 범위는 품목 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91%, 한국이 92%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이 85%, 한국이 91%이다.

이는 무역 자유화를 대하는 중국의 경직된 태도에 비해 일정 정도 예견된 사안이라는 해석도 뒤따른다.

그렇더라도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을 이번 FTA를 통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액은 902억 달러로 이중 한국에 대한 투자가 4억8000

만 달러(0.53%)에 불과했다. 중국은 FTA를 통해 부품 소재 및 의료·바이오, 문화 콘텐츠, 패션·화학품, 식품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한류 효과를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무역업계의 평가다.

반면 FTA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다. 우선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한중 FTA에서 농수산물 개방 수준(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을 역대 FTA 최저 규모로 '방어'했고 쌀은 아예 양허 품목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농수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농수산물 수입액은 2008년 28억2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7억1400만 달러로 5년 새 67.0%나 증가했다.

우리의 FTA 수혜 품목으로 여겨지는 공산품 역시 중국산 물량이 국내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섬유·의류와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들의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당장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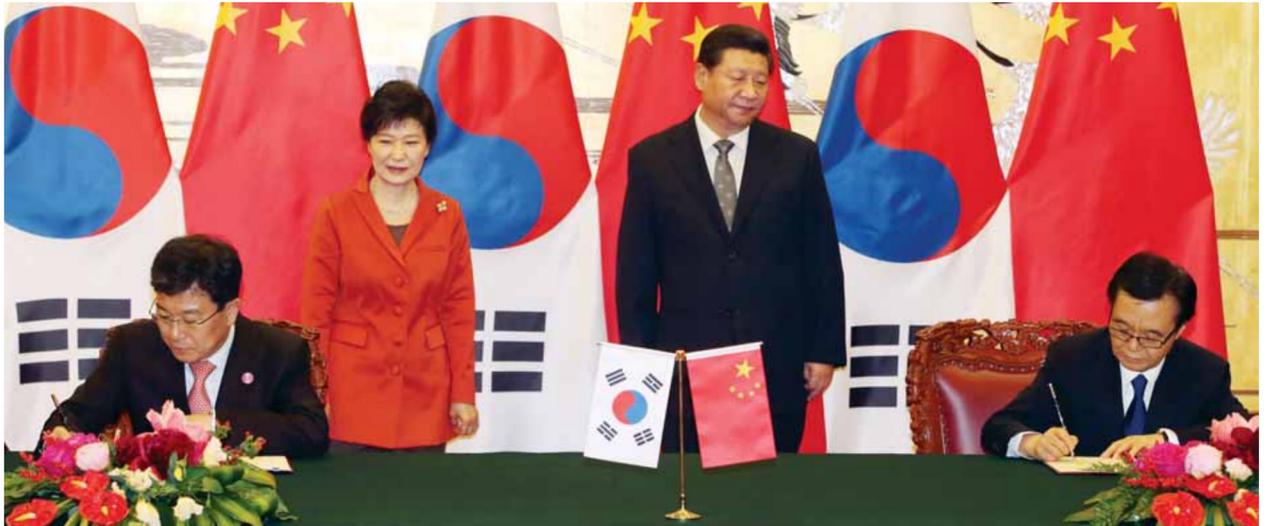
한편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 FTA 경제영토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FTA를 체결한 상대국들의 GDP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전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한국은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 발효돼 있다. 미국과 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도 여기에 속한다.

한·콜롬비아, 한·호주, 한·캐나다 FTA 등 3개 FTA는 협상이 타결돼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은 50개 국가로 늘어났다.

한중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3번째 FTA다. 50개 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EU와 아세안 등 개별국이 아닌 국가연합체 단위로 맺은 FTA가 포함된 것이 때문에 합수로 따지면 13번째가 된다.

50개 국가의 GDP 총합은 전 세계 GDP의 73.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칠레(85.1%)와 페루(78.0%)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영토를 보유한 국가로 올라섰다.



10일 오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장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 “미·유럽·아 FTA 네트워크 완성” 야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졸속 타결”



여야는 10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거대시장의 문을 열게 됐다며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가 졸속 타결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함으로써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며 “국토는 작지만 세계 경제 영토는 73%나 되는 FTA 강국으로 거듭나게 됐으며 경제적 통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유기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정상 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면서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크고 정유·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중 FTA 타결로 농업분야에 한미 FTA의 다섯배에 달할 것인 전망도 있다”며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르면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국회 비준동의의 진통 예고, 발효까지 수년 걸릴 수도

■남은 절차와 전망

10일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려면 가서명, 정식 서명, 자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양측은 우선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을 영문으로 작성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영문 협정문에 가서명하면 각자 이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서로 검증도 한다. 이 작업에도 보통 3개월이 소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서명 영문본을 FTA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문본에 대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는다.

그런 다음에 영어와 해당국 언어로 만든 협정문에 두 나라가 정식 서명하게 된다. 양측이 서두른다면 내년 상반기 중 정식

서명이 가능하다.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관문은 비준이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농축수산단체와 시민단체의 FTA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양당이 협상 내용과 국내 피해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준에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FTA 발효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 동의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날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는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5년이 걸렸다. /연합뉴스

HNT 하나투어

www.HanaTour.com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세요!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문의전화 062)228-1199
주소: 광주 동구 불로동 96-7번지
근무시간: 09:00~20:00(연중무휴)

무안출발 방콕 전세기 취항

일	화	수	목	금	토	일
4	6	7	8	9	10	11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AAPF01-OK1: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014,800원
- AAPF01-OK2: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314,800원
- AAPF01-OK3: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64,800원
- AAPF01-OK4: 방콕/파타야 5일, 총 상품가격 1,453,900원

지역별 추천 허니문 상품

- HHN200-02C: 오아후 6일, 총 상품가격 2,476,100원
- AAW101-A: 울디브 6/7/8일, 총 상품가격 3,751,200원
- AAW109-TG: 코사우이 6일, 총 상품가격 1,706,800원
- PSW104-01A: 사이판 4/5일, 총 상품가격 851,100원

특별한 하나투어 호주/뉴질랜드 여행

- PAP201-0Z: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8일, 총 상품가격 3,186,300원
- PAP201-KEP: 호주/뉴질랜드 남북섬 10일, 총 상품가격 4,086,300원

세정투어여행사 062)464-8000
리지투어 062)431-0102
가림여행사 수원점 062)955-5230

■여행상품 가격표에 기재된 유류비, 공항이용료, 전세비, 관광진흥기부금, 운송세/박식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료 등 반드시 고객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유류비 증감률 등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환율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이드/코치/전담가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될 경우 별도 경비 지불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박/항공기 탑승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관광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참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상황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중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설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신/불만접수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